『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7)*

-권8, 12:01~12:16 부분을 중심으로-

박준석**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 12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2장 1행부터 16행까지의 점토석독구결의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1. 『유가사지론』 권8의 12장의 내용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 12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2장의 일부(12:01~12:16)에 대하여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十不善業'의 두 번째인 '不與取'<11:06-12:08>의 끝부분부터 세 번째인 '欲邪行'<12:09-13:07>에 해당되는 부분이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4년 10월 30일, 11월 27일)에서 배포한 강독 요지문을 수정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강사.

다. 권8의 12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사지론』 권8, 12장의 내용 구조

Ⅰ. 本地分(권1～권50)
제1지 五識身相應地(권1)
제2지 意地(권1～권3)
제3지 有尋有伺等三地(권4～권10)
(1) 界施設建立
(2) 相施設建立
(3) 如理作意施設建立
(4) 不如理作意施設建立
(5) 雜染施設建立
① 煩惱雜染
② 業雜染
㉠ 業自性
㉡ 業分別
㉮ 補特伽羅相差別建立
[1] 十不善業道
ⓐ 殺生
ⓑ 不與取－〈권8, 11:06-12:08〉
ⓒ 欲邪行－〈권8, 12:09-13:07〉
ⓓ 妄語
…
ⓙ 邪見
[2] 十善業道
㉯ 法相差別建立
㉢ 業因
㉣ 業位

㉤ 業門
㉥ 業上品
㉦ 業顚倒攝
㉧ 業差別
㉨ 業過失
③ 生雜染
제6지 三摩呬多地(권11~권13)
제7지 非三摩呬多地(권13)
…
제17지 無餘依地(권50)
Ⅱ. 攝決擇分(권51~권80)
Ⅲ. 攝釋分(권81~권82)
Ⅳ. 攝異門分(권83~권84)
Ⅴ. 攝事分(권85~권100)

이 글에서 살펴보고 있는 '十不善業'은 열 가지의 착하지 못한 죄악으로써, 흔히 十惡이라고 한다. 십악에는 몸[身]으로 짓는 세 가지 죄악(殺生, 偸盜, 邪淫)과 입[口]으로 짓는 네 가지 죄악(妄語, 兩舌, 惡口, 綺語)과 뜻[意]으로 짓는 세 가지 죄악(貪欲, 瞋恚, 邪見) 등의 열 가지 죄악이 해당된다.

십불선업의 열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殺生은 '인간, 축생 따위의 목숨을 살해하는 것'이고, 不與取는 '다른 이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즉 偸盜이고, 欲邪行은 '자기 처첩이 아닌 다른 여자와 婬事를 하는 것'으로 邪淫에 해당되며, 妄語는 '진실치 못한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이고, 離間語는 '두 사람에게 대하여, 번갈아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리하여 쌍방의 사이를 막아서 불화하게 하는 것'으로 즉 兩舌이고, 麤惡語는 '남에게 성내게 할만한 나쁜 말'로 즉 惡口이고, 綺語는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미는 말'이고, 貪欲은 '자기의 뜻

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간의 색욕, 재물 등을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이 해당되고, 瞋恚는 '성내는 것'이고, 邪見은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옳지 못한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不與取와 欲邪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고 있다.

2. 해독안

이 글에서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A부터 E까지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순서대로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표시.
B: A의 점토구결을 자토구결로 바꾼 것.
C: 우리말 어순에 맞게 고치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석독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것.
D: C의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한문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유가08 12:01-02>
A: 有罪而取[51(·)]者[23~33(··)]謂能[55(·)]攝受現法{23(-)}後法[=44(·)?]{34(·),53(·)#53(:)}非愛[42(·)]果[34(·),43(ㅣ)]故[55(·)]
B: 有罪而取[ㅣ]者[xㅅㄱ]謂能[ㅀ]攝受現法後法[十]非愛[ㄴ]果[乙,xᄼ]故[ㅀ]
C: 有罪而取(ㅢ)ㅣ{者}xㅅㄱ 謂 能ㅀ 現法 後法十 非愛ㄴ 果乙 攝受xᄼ{故}ㅀ
D: 有罪而取이라 하는 것은, 즉 능히 現法과 後法에서 非愛의 果를

攝受하는 까닭이며

E: 죄가 있게 가진다 함은 현재의 법과 뒤의 법에서 사랑스럽지 않는 결과를 거두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08 12:03-04>

A: 於不與取[44(·)]若未遠離[51~52(.·)]者[23~33(··)]如前[42(·)?]煞[1] 生相[44(·)]說[33(\),+11~21(·),지시선(\)]應[=33~43(/)]知[42(\),51(·)]所餘[33(·),42(·)]業道亦尒[=51(·)]

B: 於不與取[十]若未遠離[x丨]者[xㅅㄱ]如前[七]煞生相[十]說[ノㄱ,攴]應[ㇾㄱ 卬]知[ノ宀七,丨]所餘[ㄱ,七]業道亦尒[丨]

C: {於}不與取十 若 未遠離x丨{者}xㅅㄱ 前七 煞生相十 說ノㄱ{如}攴ㇾㄱ 卬 知ノ宀{應}七丨 餘ㄱ 所七 業道 亦 尒(ㇾ)丨[2]

---

1) 이체자이다.

2) '{於}不與取十 若 未遠離x丨{者}xㅅㄱ 前七 煞生相十 說ノㄱ{如}攴ㇾㄱ 卬 知ノ宀{應}七丨 餘ㄱ 所七 業道 亦 尒(ㇾ)丨'와 같은 구문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거나 유사한 내용이어서 또다시 반복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구문은 10장 21행부터 23행까지 나타나는 내용으로, 김성주(2005:220~221)에서 해당 구문의 C와 D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C: {於}煞生事十 若 未遠離(刂)丨{者}xㅅㄱ 此ㄱ 緣乙 遇ㇻㄱ 出離ㇾ宀{容可}七x亠 謂 乃 至刂 未遠離來火 名下 煞生者亠xㅅ乙 顯x丨

D: 煞生事에 만약 未遠離다 하는 것은, 이는 緣을 만나면 出離할 수 있으니, 즉 내지 未遠離 동안만을 일컬어 煞生者라 함을 나타낸다.

살생한다는 것은 살생의 緣이 닿아 있는 동안만을 살생의 악업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살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緣을 만난 때부터는 살생의 악업에 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不與取에서 未遠離하다 하는 것' 또한 不與取의 악업과 연이 닿아 있는 동안만을 不與取의 악업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不與取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연을 만난 때부터는 不與取의 악업에 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생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여 풀이하고, 해당 내용과 아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문은 더 이상 풀이하지 않는

D: 不與取에서 未遠離하다 하는 것은, 앞의 煞生相에서 說한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남은 것의 業道 또한 그러하다.

E: 주지 않았는데 가지는 것에서 아직 멀리 여의지 못하였다 함은 앞에서의 산 목숨 죽이는 모양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그 밖의 업 길에서도 역시 그러한 줄 알아야 하리라.

<유가08 12:04-07>

A: 此中[22(·),42(·)]略義[22~32(·)]者[15~25(-),23~33(·)]謂由盜此[34(·),45(/),24(·),43(·)]故[21(·)]成不與取[+15~25(-),31(·)]若於是處[3][44(·)]如其差別[34(·),32~42(·)]如實[+11~21(·)]劫盜[+15~25(-),31(·)]由劫盜[45(/),24(·),43(·)]故[21(·)]得此過[34(·)]失[+15~25(-),31(·),34(·),지시선(/)]是[34(·)]名[54(·)]捻義[53(·),+51(·.)]

B: 此中[ㅋ,七]略義[ㅖ]者[尸,入ㄱ]謂由盜此[乙,x入乙,ㅔ,灬]故[丿]成不與取[丿尸,人]若於是處[十]如其差別[乙,八]如實[ㅊ]劫盜[丿尸,人]由劫盜[x入乙,ㅔ,灬]故[丿]得此過[乙]失[丿尸,人,乙]是[乙]名[下]捻義[ㅗ,xㅣ]

C: 此 中ㅋ七 略義ㅖ{者}尸入ㄱ 謂 此乙 盜x入乙 由ㅔ(ㄱ)灬{故}丿 不與取(乙) 成丿尸人 若 {於}是 處十 其 差別乙 如八 實 {如}ㅊ 劫盜丿尸人 劫盜x入乙 由ㅔ(ㄱ)灬{故}丿 此 過失乙 得丿尸人乙 是乙 名下 捻義ㅗxㅣ

D: 이 중의 略義인 것은, 즉 이를 훔치는 것을 말미암아 不與取를 이루는 것과 이 곳에서 그 差別과 같이 사실대로 劫盜하는 것과 劫盜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 過失을 얻는 것을, 이를 일러 捻義라 한다.

E: 이 가운데에서, 간략한 이치라 함은 이를 도둑질한 탓으로 주지 않는데 가진다는 것이 성립됨을 말하며, 만약 이 곳에서 그 차별과 같이 사실대로 강제로 빼앗으면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허물

다고 밝힌 부분이다.

3) 이체자이다.

을 얻나니, 이를 총의라고 한다.

<유가08 12:07-08>

A: 又此[42(·)]中[44(·)]亦顯不與取者相[34(·),53(:)]非不與取相[4][34(·),33(:),=51(·)]當知[51(·)]餘[11~21(-),14(·)]亦尒[=51(·)]

B: 又此[ㄴ]中[十]亦顯不與取者相[乙,x丄]非不與取相[乙,xㄱ,ㅣ]當知[ㅣ]餘[ㅌ,ㄲ]亦尒[ㅣ]

C: 又 此ㄴ 中十 亦 不與取者相乙 顯x丄 不與取相乙(丶)xㄱ 非(矢)ㅣ 當(ㅅ) 知ㅣ 餘(丶)ㅌㄲ 亦 尒(丶)ㅣ

D: 또 이 중에서 역시 不與取者相을 나타내지, 不與取法相을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남은 것도 역시 그러하다.

E: 또, 이 중에서도 주지 않는데 가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지 않는데 가지는 법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 나머지도 역시 그러한 줄 알아야 한다.

<유가08 12:09-09>

A: 復次欲邪行者[51(·)]者[23~33(··)]此是[33(·)][5]捻句[=22~32(·),55(·),구결자(ㅐ)[6]]

B: 復次欲邪行者[ㅣ]者[xㅅㄱ]此是[ㄱ]捻句[ㅐ,ㄉ]

C: 復 次 欲邪行者(ㅐ)ㅣ{者}xㅅㄱ 此 是ㄱ 捻句ㅐㄉ

---

4) 재조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는 '非不與取法相'으로 되어 있다.

5) "(復次)…者此是捻句" 구문의 '此是'에 나타나는 점토는, "殺生者者此是捻句" <유가08 10:06-07>의 '此'와 '是'에는 '33'의 자리에 단점'(·)'이 모두 나타나지만, "復次不與取者者此是捻句"<유가08 11:06>와 "復次欲邪行者者此是捻句"에서는 '是'에만 '33'의 자리에 단점'(·)'이 나타나고, "復次諸妄語者者此是捻句" <유가08 13:08>부터는 '此'에만 '33'의 자리에 단점'(·)'이 나타난다.

6) 구결자는 해당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예는 해당 한자의 왼쪽 아래에 구결자가 기입되어 있다.

D: 또 다음으로 欲邪行者이라 하는 것은, 이는 捻句이며
E: (다음에) 음욕의 사뙨 행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2:09-12>
A: 於諸父母等[23(/)]所守護[33(\),44(·),52(.·)]者[23~33(··)]猶[23~33(·)]如父母[22~32(·)]於己[23(·)]處女[23(·),44(·)]爲適事他[34(·),=24(·),31(·),45(/),43(·)]故[21(·)]勤加守護[15(·)]時時[44(·)]觀察[22(·)]不令與餘[34(·),42(·)]共[42(·)]爲鄙穢[34(·),15~25(-)#15~25(-·),24(·),35(·),55(·),삐침선(22~32,\)]
B: 於諸父母等[ㅅㄱ ㅋ]所守護[ㅅㄱ,十,xㅣ]者[xㅅㄱ]猶[ㅅㄱ]如[7]父母[ㅛ]於己[ㅋ]處女[ㅋ,十]爲適事他[乙,ㅆㅛ,人,xㅅ乙,ㅟ]故[ㅅ]勤加守護[ㅎ]時時[十]觀察[ㅈ]不令與餘[乙,七]共[七]爲鄙穢[乙,尸,ㅆㅛ,ㅋ,ㅁ]
C: {於}諸 父母 等ㅅㄱ ㅋ 守護ㅅㄱ 所十xㅣ{者}xㅅㄱ 猶ㅅㄱ 父母ㅛ {於}己ㅋ 處女ㅋ十 他乙 適事ㅆㅛ{爲}人xㅅ乙ㅟ{故}ㅅ[8] 勤加守護(ㅅㅈ)ㅎ 時時(ㅈ)十 觀察(ㅅ)ㅈ 餘乙 與七 共七 鄙穢乙 爲尸 不(ㅁ){令}ㅆㅛㅋ(ㅅ)ㅁ
D: 모든 父母들의 수호하는 바에 있다 하는 것은, 비유하면 父母가 자기의 딸에게 남에게 適事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勤加守護하여서 때때로 觀察하여 남과 더불어 함께 鄙穢를 하지 않게 하고 하며
E: 모든 부모들에게 수호를 받는 이라 함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딸을 다른 이에게 시집 보내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수호하기에 더욱 힘써서 때때로 자세히 살피면서 딴 이와 함께 더러운 일을 하지 않게

---

7) <유가08 12:16>의 세 번째 글자인 '護'자에 기입된 [+11~21(·)](ㅈ)와 호응한다.
8) 혹 이부분은 "於己[23(·)]處女[23(·),44(·)]爲適事他[23(·),=44(·),31(·),45(/),43(·)]故[21(·)]"로 판독하고, "{於}己ㅋ 處女ㅋ十 他ㅋ十 適事(ㅅ){爲}人xㅅ乙ㅟ{故}ㅅ"로 해독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며,

<유가08 12:12-13>

A: 若彼[22~32(·)]沒已[44~54(丨),33(·)]復爲至親[33~43(·)]兄弟[53(·)]姉妹[53(·),+15~25(-),23(·)]之所守護[+15~25(-),34(·),32~42(·),35(·),55(·)?#55(·.)?[9]]

B: 若彼[亻]沒已[x十,丁]復爲至親[卬]兄弟[亠]姉妹[亠,丿尸,冫]之所守護[丿尸,乙,八,彡,分]

C: 若 彼亻 沒已x十丁 復 至親卬 兄弟亠 姉妹亠丿尸冫{之} 守護丿尸 所乙 爲八彡(丷)分

D: 만약 그가 沒已한 경우에는 또 至親인 兄弟이니 姉妹이니 하는 이의 守護할 바를 받고 하며

E: 만약 그가 없게 되면 가까운 겨레붙이인 형제와 자매의 수호를 받게 되며,

<유가08 12:13-14>

A: 此若无[44~54(丨),33(·)]者復爲餘親[23(·)]之所守護[+15~25(-),34(·),32~42(·),35(·)]

B: 此若无[x十,丁]者復爲餘親[冫]之所守護[丿尸,乙,八,彡]

C: 此 若 无x十丁{者} 復 餘親冫{之} 守護丿尸 所乙 爲八彡(丷分)

D: 이들이 만약 없는 경우에는 또 餘親의 守護할 바를 받고 (하며)

E: 이들도 만약 없으면 다시 다른 겨레붙이에게 수호를 받게 되며,

<유가08 12:14-15>

A: 此若无[44~54(丨),33(·)]者恐[23~33(/)]損家[41(·),22(·),경계선]族[34

9) 점토가 기입된 주위가 뭉개졌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41(·),+15~25(-),지시선(/)]便[21(·)]自[43(·)]守護[35(·)]

B: 此若无[x十,ㄱ]者恐[ㅅㄱ ㅅㄱ]損家[ㅊ, ㅈ]族[ㄹ,ㅊ,ㄲ]便[ㅋ]自[ㅟ]守護[ㅎ]

C: 此 若 无x十ㄱ{者} 恐ㅅㄱ ㅅㄱ 家族ㄹ 損(ㅅ)ㅊㄲㅊ(ㅅ)ㅈ[10] 便ㅋ 自ㅟ 守護(ㅅ)ㅎ(ㅅ가)

D: 이들이 만약 없는 경우에는 두려워하건대 家族을 損할까 하여 곧 스스로 守護하고(하며)

E: 이들도 만약 없으면 가족을 다칠까 두려워하여 곧 스스로가 수호하게 되며,

<유가08 12:15-16>

A: 或彼舅姑[22~32(·)]爲自[23(·)]兒[34(·),45(-)#45(/),43(·),삐침선(31,\)]故[21(·)]勤加守護[35(·),11~21(-),+11(·)[11],+54~55(.·)]

B: 或彼舅姑[ㅣ]爲自[ㅋ]兒[ㄹ,xㅅㄹ,ㅟ]故[ㅅ]勤加守護[ㅎ,ㅌ,ㅈ,x가]

C: 或 彼 舅姑ㅣ 自ㅋ 兒ㄹ 爲xㅅㄹㅟ{故}ㅅ 勤加守護(ㅅ)ㅎ(ㅅ가ㅅ)ㅌ {如}ㅈx가

D: 혹 그 舅姑가 자기의 兒를 위하는 까닭으로 勤加守護하고 하며 하는 것과 같으며

E: 혹은 그의 시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 수호하게 되는 것이다.

---

10) "恐ㅅㄱ 資緣 乏ㅈㅎ 是 如ㅈㅅㄱ 所受ㅌ 正法ㄹ 退失ㅅㄲㅊㅅㄴㅏㄲㅊㅅㅟ" <유가20 03:13-18> 참조.

11) <유가08 12:10>의 여덟 번째 글자인 '如'자와 호응하는 점토이다.

참고문헌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pp. 213-232.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 57-77.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 216-231.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pp. 175-220.

서민욱(2005가),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민욱(2005나),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pp. 197-212.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 229-250.

이승재·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pp. 115-145.

이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33-247쪽.

이전경(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pp. 221-243.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pp. 205-225.

장경준(2004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 192-212.

장경준(2004나), 「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pp. 149-174.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

을 중심으로ㅡ』.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00-380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1-2번지 충무아파트1008호〕
E-mail: juneseok_park@yahoo.co.kr
접수일자: 2005. 6. 30.
게재결정: 2005. 7. 30.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2:01-12:16-

Park, Jun Seok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